

하반기(제23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부분점수 인정 기준표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 41-42 공통 기준 (1) 문법적 오류 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결어미에서 인과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 각각 3점 감점 ② 연결어미에서 인과관계가 드러나되, 연결이 어색한 경우 각각 1점 감점 ③ 연결어미의 시제 오류 또는 철자 오류 등 1점 감점 ④ 종결어미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진 경우 1점 감점 (2) 제시 조건 오류 ① 순서를 교체한 경우와 문장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경우 각각 3점 감점 ② 제시된 조건 이외에 어휘를 첨가한 경우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았으면 감점 없음. ③ 첨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답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감점 없음. ④ 제시된 조건 중 부사어(예: 늦게)를 쓰지 않으면 1점 감점.		
41번	(7점) 회의를 [하느라고/하다가/하는 바람에/해야 하는데/하는데] 늦게 출발해서 차를 놓쳤다. 회의를 하느라고 늦게 [출발해서/출발했기 때문에/늦게 출발했더니/출발한 탓에] 차를 놓쳤다.	(6점) 회의를 [했기 때문에/해서/했으니까/하는 통에/했는데] 늦게 출발해서 차를 놓쳤다. 회의를 하느라고 늦게 [출발했으니까/출발했는데/하는 통에] 차를 놓쳤다. (5점) 회의를 [했기 때문에/해서/했으니까/하는 통에/했는데] 늦게 [출발했으니까/출발했는데] 차를 놓쳤다. (0점) 문제가 요구한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 문제가 요구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2번	(7점) 한번 [약속을 하면/한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있어도] 지켜야 한다. 한번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지킨다.	(6점) 한번 약속을 [해서/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5점) 한번 약속을 할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있어도] 지켜야 한다. 한번 약속을 했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 (4점) 한번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지만 지켜야 한다. (1점) 한번 약속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지켜야 한다.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3번	(8점) 혼을/만 내기보다(는) 꾸중을/만 하기보다(는) 야단을/만 치기보다(는) 야단만 치지 말고 혼내는 것보다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7점) 화만 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만 말하기보다는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하지 말고 (6점) 꾸중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이 나기보다는 혼을 나기보다는 (5점) 화를 내지 마시고 혼이 나지 말고 (4점) 부정적인 면만 말하지 않고 먼저 잘못을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2점) 꾸중을 듣고 (0점) 문제가 요구한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 문제가 요구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4번	(8점) 높이려고 하는 높이고자 하는 높이고 싶은 개발하려는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하고 싶은 개발시키려는 개발시키고자 하는 개발하고 싶은	(7점) 늘리려고 하는/ 늘리고자 하는/늘리고 싶은 키우려고 하는/키우고자 하는/키우고 싶은 높이기 위해서/개발하고 싶으면/개발시킬 수 있도록 (6점) 늘리기 위해서/ 키우고 싶으면/개발시키려면 (5점) 높이려고 하는/늘리고 싶으면 (4점) 발달하는 (3점) 높이고 (2점) 늘리고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5번	어렸을 때 나는 키도 작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학교에 가기 싫어졌고,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선생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자신감을 가지라며 격려해 주셨다. 그 후 선생님께서는 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들 앞에서 나의 장점을 칭찬해 주셨다. 나는 선생님 덕분에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성격도 활발해지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다음에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내 결심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내가 앞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24점 이상 - 내용 및 과제 수행/수사적 구조/어휘·문법·맞춤법/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 등에서 4급 수준 이상이고 400~600자 정도를 썼을 때 ('-아/어요'와 '-ㅂ니다'체를 사용해서 구성하면 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에서 감점) - 사용한 어휘와 표현이 중급의 수준에 적절할 때 ❖ 18~23점 - 내용이나 구조, 어휘와 표현, 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에서 기본적인 중급 수준을 충족시킬 때 ❖ 15~17점 - 내용 및 과제 수행/수사적 구조/ 어휘·문법·맞춤법/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 등에서 중급 수준에 못 미치나 400~600자 정도를 썼을 때 ❖ 8~14점 - 내용 및 과제 수행/수사적 구조/ 어휘·문법·맞춤법/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 등에서는 중급 수준에 못 미치나 사용한 어휘와 표현에서 오류가 많을 때 - 400자 미만으로 썼으나 내용 및 과제 수행 그리고 표현에서 중급 수준을 갖추고 있을 때 ❖ 6~7점 - 내용 및 과제 수행/수사적 구조/ 어휘·문법·맞춤법/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 등에서 초급 정도의 수준일 때 ❖ 0~5점 - 200자 미만의 글로 내용이나 구조, 표현에서 초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 -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글일 때	

2011년도 제23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주관식 채점 예시

※ 문항번호 45번

학생답안	저 아버지는 경찰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일 갖고 싶은 직업은 경찰있다. 아버지가 경찰복을 입을 때 저 항상 부럽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너무 어릴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아버지 처럼 먹있는 경찰복 입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등학교 졸업후에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것 경찰학교 갔다. 처음에 경찰학교 다닐 때 너무 기쁘고 신기했다. 하지만 일주후에 신기한 느낌 다 없어졌다. 매일 군대처럼 훈령도 하고 학교생활 완전 군대 것 같다. 당시 조금 후회하지만 계속 공부하다가 배운 것도 많아졌다. 왜 경찰직업은 갖고 싶은 이유 도 달랐다. 경찰직업하려면 먼저 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훈령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무슨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익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때 생각보니까 참 힘들지만 나중에 좋은 경찰되고 싶은 많이 준비하고 노력 도 많이 했다. 지금 한국에 유학하지만 공부 다 마친 후에 꼭 경찰 직업 하고 싶은 경심은 먹었다.	
구분	채점근거	점수
내용과 구성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집성이 결여되고, 매우 산만한 느낌이 듭니다.	15점
표현	‘경찰있다’. ‘어릴니까’, 등의 문법 오류와 ‘에’나 ‘은/는’등의 조사 생략, 철자 오류도 다소 많은 편입니다. 문장도 단문 위주의 문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중급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기타	띄어쓰기 등의 오류도 자주 눈에 띕니다.	

학생답안	제가 갖고 싶은 직업은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일본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고 싶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한국에 유학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사람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좋아해서 일본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일본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서 외국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다면 정말 기쁘다고 생각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져서 일본어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했다. 지금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보고 저도 선생님처럼 멋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은 힘들겠지만 자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먼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후에 가르치기 위한 일본어도 공부하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꼭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구분	채점근거	점수
내용과 구성	주제 파악이 잘 되어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잘 지켰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에 치우쳐 있고 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이 감점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23점
표현	전체적으로 중급 수준의 문법과 어휘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이)다’와 같은 문장 호응 오류를 보이거나 조사 생략 등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어지다’, ‘고 생각한다’와 같은 표현이 자주 반복되어 단조로운 느낌을 줍니다.	
기타	‘-다’체를 사용한 것은 좋았지만 단락 구분이 없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생답안	제가 갖고 싶은 직업은 나무의 의사인 ‘수목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좋아해서 꽃이나 선인장이나 아무 생각없이 가게에서 사서 키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수목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좋아하는 식물에 대해 공부하고 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텔레비전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오래된 힘이없는 너무 큰 나무를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수목의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부터 아마 제 마음 속에 수목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목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역시 일에 대한 결의, 시간, 돈 그리고 자격증입니다. 일본에서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 년간 공부하는 것이나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오 년간 실체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목의에 대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국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구분	채점근거	점수
내용과 구성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그러한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글의 전개도 자연스러우며 응집성 있는 글의 구성도 돋보였습니다.	28점
표현	복잡한 문장을 유창하게 구사하였으며 다양한 표현(-는지, 인용 표현 등)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습니다’체가 감점 요인이 되었고, 단락을 나누어 구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